

# 《甌北詩話》의 蘇軾 詩에 대한 시학적 관점 探討

신재환\*

## 차례

- I. 서론
- II. '以文爲詩'의 완성자
- III. 新意의 추구에 대한 찬동
- IV. 詩句의 鍛鍊에 대한 중립
- V. 禪語의 사용에 대한 비판
- VI.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淸 중엽 시인이자 시론가인 趙翼의 《甌北詩話》 중 蘇軾 卷에 해당하는 제5권(총 25장)에 대해, 소식의 시론과 관련된 내용을 ① '以文爲詩'의 완성자 ② 新意의 추구에 대한 찬동 ③ 詩句의 鍛鍊에 대한 중립 ④ 禪語의 사용에 대한 비판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하였으니,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유에서 시작된 '以文爲詩'의 作詩 경향이 소식에게서 완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은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의 議論化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둘째, 소식이 창작과정에서 끊임없이 新意를 추구하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속의 말을 전아하게 만들고'(以俗爲雅) '옛 말을 새롭게 만든다'(以故爲新)는 作詩上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식의 시가 비록 詩句의 鍛鍊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는 없으나 간간히 보이는 그의 詩句 鍛鍊에 대한 성취는, 형식적인 조탁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稱心而出)함으로써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소식이 시에 禪理나 禪趣를 담으려 하지 않고 그저 편의적으로 禪語를 詩作에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한 作詩 성격을 띠고 있는 다량의 작품을 예시하였다.

#### 주제어

趙翼, 甌北詩話, 蘇軾, 以文爲詩, 議論化, 新意的 추구, 詩句의 鍛鍊, 禪語, 以禪喻詩, 性靈詩說

## I. 서론

《甌北詩話》는 淸 중엽 시인이자 시론가인 趙翼(1727-1814)의 詩話 저작이다. 조익은 江蘇 陽湖(지금의 武進) 사람으로, 자는 雲崧(耘松으로도 씀)이고, 호는 甌北이다. 그는 淸 高宗 乾隆 15년(1750)에 舉人이 되었고, 건륭 26년(1761)에 진사가 되었다. 殿試에서 3등으로 翰林院編修를 제수받아 《通鑑輯覽》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廣西 鎮安知府와 廣州知府를 역임하면서 善政을 베풀었고 緬甸(미얀마)를 정벌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관직이 貴西兵備道에 이르렀으나 건륭 37년(1772) 廣州의 讞獄舊案에 연루되어 좌천되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으며, 만년에는 揚州의 安定書院에서 강학과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총 4,800여 수에 달하는 그의 시와 《甌北詩話》를 비롯한 기타 저작에 나타나는 그의 시학이론은 기본적으로 당시 함께 ‘江左三大家’ 혹은 ‘乾嘉三大家’로 불리었던 袁枚(1716-1798)·蔣士銓(1725-1785)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니, 摹擬를 일삼는 復古主義를 반대하고 시인의 독창적인 性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저서로는 《甌北詩集》·《甌北詩話》·《二十二史劄記》·《陔餘叢考》

· 《皇朝武功紀盛》· 《檐曝雜記》 등이 있다.

《甌北詩話》는 일명 《十家詩話》라고도 하며 총12권으로 되어있다. 제1권부터 제10권까지는 역대 10명의 大家(李白·杜甫·韓愈·白居易·蘇軾·陸游·元好問·高啓·吳偉業·查慎行)들의 시를 논하고 있으며, 제11권은 餘論(1)로 '王昭君의 시'를 포함한 11조목을, 제12권은 餘論(2)로 '七言 律詩'를 포함한 8조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反復古의 기치 아래 시인의 性情과 創新을 추구하는 시학이론을 표방하며 역대 시인과 그들의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다. 清代 여타 시론가들이 남긴 시화집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淸初의 두 시인(吳偉業과 查慎行)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진보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甌北詩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주로 性靈詩說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포괄적 방향으로 그의 시학 관점이 다루어져왔다. 이런 까닭에 제1권에서 제10권까지 10명의 大家들의 각각에 대한 사상 및 창작 발전과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검토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검토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sup>1)</sup>

이에 본고에서는 《甌北詩話》 제5권에서 다루고 있는 蘇軾(1037-1101) 시에 대한 조익의 시학적 관점을 관심의 정도에 따라 크게 ① '以文爲詩'의 완성자 ② 新意的 추구에 대한 찬동 ③ 詩句의 鍛鍊에 대한 중

1) 《甌北詩話》의 시학이론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畢桂發, 〈趙翼詩論의宏觀視野의創新精神〉, 《河南大學學報》, 1998. 1; 李鵬, 〈讓唐代成爲經典-從《甌北詩話》成書過程看趙翼의詩歌史觀〉, 《江西師範大學學報》, 2003; 王殿明, 〈從《甌北詩話》看趙翼의詩學思想〉, 西北師範文學文學院, 2004. 10; 潘殊閑, 〈簡論《甌北詩話》의李白研究〉, 《西華大學學報》 26권 5기, 2007. 10. [국내] 김지영, 〈《甌北詩話》에 나타난 趙翼의 詩論 연구〉, 《中國文學》 54輯, 2008. 2.

립 ④ 禪語의 사용에 대한 비판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조익이 《甌北詩話》에서 소식 시의 어느 측면을 부각시켜 그의 시학이론을 펼쳐내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참고로 조익은 총 25장으로 구성된 《甌北詩話》 제5권 중에서 대략 12장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시학이론을 전개하고 있다.<sup>2)</sup>

## II. ‘以文爲詩’의 완성자

이른바 ‘문장으로 시를 짓는다’(以文爲詩)는 것은 곧 시가의 산문화를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말을 있는 그대로 펴서 펼쳐내는’(數陳直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멀리 詩經의 ‘六義’ 중 賦의 기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후세 사람들에 의한 부단한 변화와 발전을 거쳐 宋代에 이르면 散文에서 사용되는 章法과 句法 그리고 字法까지 시에 끌어들이게 되니,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기풍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로써 시를 짓고 이치로써 시를 짓다 보니 詩作에 사실[事]과 이치[理]가 함께 표현되고 의향[意]과 정취[趣]가 겸하여 갖추어지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宋詩의 특징이요 蘇軾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익은 《甌北詩話》 권5(제1장)에서 ‘以文爲詩’의 완성자로서의 소식

2) 총 25장 중 조익의 시학이론이 나타나는 부분은 제1장~제11장, 그리고 제21장 정도이니, 주로 전반부에 편중되어 있다. 그 나머지 제12장~제13장은 烏臺詩案과 관련된 소식의 시, 제14장은 소식 詩文의 성행과 板刻 문제, 제15장은 소식이 시행한 토목공사, 제16장은 소식의 당시 인물과의 친소 관계, 제17장은 소식에 대한 당시 인물들의 敬慕, 제18장~제19장은 소식의 處所와 移居 문제, 제20장은 烏臺詩案, 제22장은 《東坡年譜》에 대한 오류 지적, 제23장은 소식 시에 대한 주석의 불명확함 지적, 제24장은 소식에 대한 포폄의 오류 지적, 제25장은 소식 시의 전고의 일단을 소개하고 있다.

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문장으로 시를 짓는 것은 한유에서 시작되었고, 소식에 이르러 그 문사가 더욱 호방해졌으니, 달리 새로운 국면을 열어 한 시대의 장관을 이루었다.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를 읽어보면 대체로 창작의 재능이 흘러넘치고 닿는 곳마다 신선함을 일으키며 가슴 속에 서책이 매우 풍부하여 또한 여러 방면으로 응용하기에 충분하니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욱이 남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은, 하늘이 한 자루의 힘찬 붓을 내리시니 시원하기가 袁氏 집의 배<sup>3)</sup>와 같고 날카롭기가 并州에서 만들어진 가위<sup>4)</sup>와 같아서, 깊이 감추어진 것도 반드시 드러내어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없었다.

以文爲詩，自昌黎始；至東坡益大放厥詞，別開生面，成一代之大觀。今試平心讀之，大概才思橫溢，觸處生春，胸中書卷繁富，又足以供其左旋右抽，無不如志。其尤不及者，天生健筆一枝，爽如袁梨，快如并剪，有必達之隱，無難顯之情。

조식은 먼저 ‘以文爲詩’의 作詩 경향은 韓愈(768-824)에게서 시작되었고, 소식에게서 완성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식의 ‘以文爲詩’는 그 성격이 한유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 한유는 주로 古文的 章法과 句法으로 시를 지음으로써 結構 수단과 서술 방식을 포함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散文化를 이루었다면 소식은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의 議論化에 치중하였다.<sup>5)</sup>

‘以文爲詩’의 창작 수법은 ‘깊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達之隱)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없을’(無難顯之情) 정도로 시인의 흥금에 담고 있는 모든 정서를 고스란히 표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3) 漢代 秣陵 사람 袁仲이 집에 배를 심었는데, 과실이 크고 맛이 좋아 당시 사람들이 ‘애씨 집의 배’(袁家梨)라고 하였다. 이 말은 후에 아름답고 빼어난 문사에 비유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4) 옛날 并州에서 생산된 가위는 날카롭고 예리하여 그렇게 이름 붙었다.

5) 吳枝培, 〈蘇軾的文藝創新精神〉, 《南京大學學報》, 1988. 1, 《中國古近》 1988년 03기.

소식은 ‘以文爲詩’의 수법을 주로 장편의 歌行體 창작에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호방한 풍격의 작품을 써냄으로써 ‘한 시대의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成一代之大觀).

조익은 《甌北詩話》 권5(제9장)에서 소식을 한유 이후 陸游(1125-1210) 이전의 스스로 일가를 이룬 작가로 인정하고,<sup>6)</sup> 세 사람 사이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하니, 소식이 이들 두 시인보다 뛰어난 점은 바로 議論의 구사를 통한 시의 散體化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유는 험운을 잘 사용하여 극진히 단련하였으나, 소식은 운을 가리지 않고 단지 뜻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였다. 육유의 古詩는 대구를 즐겨 사용하여 현란함을 자랑하였으나, 소식은 詩文 사이에 單行이 많고 대구를 하찮게 여겨 마음에 두지 않았다. 또한 한유와 육유는 대부분 시상을 정면으로 펼쳤으나, 소식은 반대면·옆면·좌우로 응용하였으니, 오로지 서술에만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유와 육유는 전고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소식은 책 속의 말을 잘 응용하여 議論에 집어넣어 마치 굴을 뚫고 키를 뒤집듯 하니 판에 박은 듯 운용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몇 가지 점은 소식이 비교적 나은 듯하다.

昌黎好用險韻，以盡其鍛鍊；東坡則不擇韻，而但抒其意之所欲言。放翁古詩好用儷句，以炫其絢爛；東坡則行墨間多單行，而不屑於對屬。且昌黎·放翁，多從正面鋪張；而東坡則反面·旁面，左縈右拂，不專以鋪敘見長。昌黎·放翁，使典亦多正用；而東坡則驅使書卷入議論中，穿穴翻箕，無一板用者。此數處，似東坡較優。

위 조목에서 조익은 소식이 詩韻에 얽매이지 않고 ‘뜻이 말하고자 하는 바’(意之所欲言)를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여겼다. 직접적으로 ‘散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詩文 사이에 單行이 많다’(行墨間多單行)’고 하였지만, 여기에서 그가 말한 ‘單行’이 곧 散體이니, 이는 ‘駢儷’와 상대적

6) 《甌北詩話》 권5(제9장) : 昌黎之後，放翁之前，東坡自成一家，不可方物。

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고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한유와 육유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 쓰는 것’(正用)이 아니라, 책 속의 전고에 대해 議論化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식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以文爲詩’로 인한 시의 議論化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지닌 시론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嚴羽(1180-1264)가 《滄浪詩話·詩辨》에서 “근래 여러 사람들은 기이하고 특별한 이해를 하여 마침내 문자로써 시를 짓고, 재능과 학문으로써 시를 지으며, 의론으로써 시를 짓게 되었다. 어찌 (이러한 시가) 공교롭지 않으리오마는 끝내 고인들이 지었던 시는 아니다.”(近代諸公作奇特解會, 遂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 以議論爲詩. 夫豈不工, 終非古人之詩也.)라고 지적한 내용을 자신들의 이론적 무기로 삼고, 이러한 기풍은 바로 北宋의 蘇軾과 黃庭堅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以文爲詩’의 현상은 이미 中唐 시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당대 시인들은 주로 문장의 법도를 운용하여 시를 지은 수준에 머물렀던 데 반해 송대 시인들은 시를 통해 理를 말하고 禪을 이야기하는 등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다.<sup>7)</sup>

바꾸어 말하면 대량의 理題와 理語의 출현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시로 여기고”(自出己意以爲詩)<sup>8)</sup>, ‘뜻이 말하고자 하는 바’(意之所欲言)를 서술해내는 것을 시로 여길 정도였던 소식에게는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식이 이렇게 내용적 측면에서의 議論化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히 句法·字法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散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

7) 葛曉音, 〈論蘇軾詩文中的理趣——兼論蘇軾推重陶王韋柳的原因〉, 《學術月刊》, 1995. 4, 《中國古近》 1995년 08기.

8) 《滄浪詩話·詩辨》

다. 이 점에 대하여 《甌北詩話》 권5(제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식은 큰 기세가 두루 미쳐 비록 句法과 字法에서 신기함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나 필력이 이르는 곳마다 스스로 독창적인 풍격을 이루었다.  
東坡大氣旋轉，雖不屑屑於句法·字法中別求新奇，而筆力所到，自成創格

句法과 字法の 변화를 통한 '新奇'한 풍격의 추구는 소식이 성취한 '독창적 풍격'(創格)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니, 筆力으로 인한 新意의 추구가 곧 소식의 '以文爲詩'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겠다.

조익은 또한 《甌北詩話》 권5(제2장)에서 소식이 시의 議論化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고 말하고, 〈哭刁景純〉을 포함한 4수의 오언 고시 對偶句와 〈泗州僧伽塔〉을 포함한 11수의 칠언 고시 對偶句를 예시하였다.

소식의 시는 재주와 지혜가 출중한 일파를 숭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점은 의론이 뛰어나고 명쾌하며 필봉이 예리하고 날카로워 무거운 주제를 마치 가벼운 듯 대하는 것이니, 이를 읽으면 전혀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필력이 이미 십분 발휘된 것이다. 이것은 타고난 재주이다. …… 「발을 가는 사람은 비 오기를 기다리고 수확하는 사람은 맑아지기를 바라는 법, 가는 이에게 순풍이면 오는 이에겐 원망스러운 법. 빈다고 사람마다 소원 성취한다면, 조물주는 하루에도 천만번 변해야 하리.」(〈사주의 승가탑〉) …… 이 시들은 모두 소식의 작품 중에서 최상급으로, 독자들은 그의 뛰어난 재주가 힘들여 노력함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坡詩不尙雄傑一派；其絕人處，在乎議論英爽，筆鋒精銳，舉重若輕，讀之似不甚用力，而力已透十分，此天才也。…… 「耕田欲雨刈欲晴，去得順風來者怨，若使人人禱輒遂，造物應須日千變。」(〈泗州僧伽塔〉)……此皆坡詩中最上乘，讀者可見其才分之高，不在功力之苦也。

위 조목의 첫머리에서 말한 '雄傑'은 풍격 용어로서의 '雄偉'가 아닌 '재주와 지혜의 출중함'(才智出衆)으로 해석되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성



취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따라서 조익은 소식 시의 성취는 그가 ‘재주와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이 아닌 ‘타고난 재주(天才)가 탁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시된 도합 15수의 최상급에 속하는 시편들은 결국 소식의 ‘天才=才分之高’에 기인한 것이지, ‘雄傑=功力之苦’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재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예시된 작품 중 대다수가 칠언 고시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칠언 고시의 詩體는 내용적으로 그의 정치적 응어리를 悠長하게 펼쳐내는데 가장 적합하였을 것이고, 結構 안배나 句法과 字法의 운용 등형식적인 측면에서의 散體化에도 가장 부합하였을 것이다.

### Ⅲ. 新意의 추구에 대한 찬동

‘新意’라 함은 詩文에 나타난 ‘참신한 뜻’·‘새로운 意境’·‘새롭고도 알찬 뜻’·‘새로운 의도’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詩文에 관한 評語의 일종이다.<sup>9)</sup> 조익은 《甌北詩話》 권5(10장)에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움’(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정의하였다.

원호문의 〈논시절구〉에서 말하기를 “소식 문하에 만약 충신이 있었다면, 그의 시가 온통 新畵한 모습으로 있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옳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찌 ‘새로움’을 말하기 쉽겠는가? 뜻은 다른 사람이 말한 적이 없어야 새로운 것이고, 글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어야 새로운 것이다. 시인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로써일 뿐이다. 만약 반대로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면 반드시 옳은 것을 주워서 앵무새처럼 따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둥을 끌어안고

9)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148쪽.

그루터기를 지키며 감히 한 발짝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니, 그러고서도 일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 대가가 될 수 있겠는가?

元遺山〈論詩絕句〉云：“蘇門果有忠臣在，肯放公詩百態新！”此言似是而實非也。‘新’豈易言！意未經人說過，則新；書未經人用過，則新。詩家之能新，正以此耳。若反以新爲嫌，是必捨人牙後，人云亦云；否則，抱柱守株，不敢踰限一步：是尙得成家哉？尙得成大家哉？

인용된 元好問(1190-1257)의 시는 그의 〈論詩三十首〉 중 제26수의 제3-4구이며,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入洪爐不厭頻，	금은 넓은 용광로에 넣기를 반복해도 싫어하지 않으니
精眞那計受纖塵。	그 정미하고 참됨이 어찌 작은 먼지의 영향을 받겠는가?
蘇門果有忠臣在，	소식 문하에 만약 충신이 있었다면，
肯放公詩百態新！	그의 시가 온통 新奇한 모습으로 있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

위의 〈論詩三十首〉(제26수)에서 원호문이 깎아내린 소식 시의 ‘온통 新奇한 모습’(百態新)은 ‘참신한 뜻’이라는 의미로서의 ‘新意’가 아니라, ‘기미함을 다투고 번다함을 자랑하는’(鬪靡誇多) 소식 시의 부정적 단면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論詩三十首〉 제22수에서 소식과 황정견 시의 병폐를 말하면서, “신기함이 다하여 별도의 신기함이 없는데도 다시 신기함을 드러내려 하네.”(奇外無奇更出奇)<sup>10</sup>에서의 ‘新奇’함을 말한다. 따라서 조익이 소식 시에 대한 원호문의 폄하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익은 소식 시가 新意를 추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10) 〈論詩絕句〉 제22수의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奇外無奇更出奇，一波才動萬波隨。只知詩到蘇黃盡，滄海橫流却是誰？

거쳐야 하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였으니, 바로 ‘뜻은 다른 사람이 말한 적이 없어야 하고’(意未經人說過) ‘글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하는’(書未經人用過) 것이 그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甌北詩話》 권5(7장)에서 孔平仲이 古人의 시구를 모아 시를 만들어 소식에게 보이자, 소식은 “하늘가의 큰 기러기 쉽게 얻을 수 없다고, 집닭을 붙잡아 대구로 삼았네.”(天邊鴻鵠不易得, 便令作對隨家雞.)<sup>11)</sup>라고 하며, 불만스러움이 가득 배어있는 시 네 수를 지어 그가 集句의 방식으로 시를 짓는 태도를 은근히 조롱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단락의 말미에 “남의 시구를 모아 시를 짓는 것은 대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 같다.”(似譏集句非大方家所爲.)라고 하며, 소식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조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뜻과 이미 사용한 글의 전형적 유형인 集句詩는 新意의 추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작시 방법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

조식은 또한 《甌北詩話》 권5(2장)에서 新意의 추구에 대해, 唐代 유명한 서예가인 顏真卿과 徐嶠之·徐浩 부자의 書法 특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소식의 〈孫莘老求墨妙亭詩〉 일부를 예시하였다.

顏公變法出新意,    안진경은 옛 법도를 변화시켜 새로운 뜻을 내놓으니,  
 細筋入骨如秋鷹.    가는 힘줄 뿔속에 사무쳐<sup>12)</sup> 가을 매와 같구나.  
 徐家父子亦秀絕,    서씨 부자 또한 뛰어나게 빼어나니,  
 字外出力中藏稜.    글자 밖으로 힘이 넘치고 그 가운데 위엄 감추었네.<sup>13)</sup>

11) 〈次韻孔毅父集古人句見贈五首, 其一〉, 《蘇軾詩集》 권22, 1155쪽.

12) 細筋入骨은 古人의 論書法이다. ‘뼈가 많고 살이 적음’(多骨微肉)으로써 필력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書法을 최상으로 여기는데, 그것을 일러 ‘筋書’라고 한다.

13) 〈孫莘老求墨妙亭詩〉는 총 12연으로 이루어진 칠언 고시인데, 위에 예시된 부분은 제2연과 제3연에 해당한다. (《蘇軾詩集》 권8, 371쪽.)

顏真卿(709-785)은 初唐의 褚遂良과 玄宗 年間(713-756) 狂草로 유명한 張旭의 서법을 변화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楷書體인 ‘顏體’를 탄생시켰다. ‘顏體’와 더불어 唐代 楷書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은 歐陽詢의 ‘歐體’는 王羲之 서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전통을 계승한 의미가 강한 반면 ‘顏體’는 전통 楷書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형태와 심미적 범주를 형성하였다. 위 시에서 소식은, 안진경의 서법이 ‘옛 법도를 변화시켜’(變法) ‘새로운 뜻을 내놓듯’(出新意) 詩作에서도 新意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前人의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소식은 또한 일관되게 創新을 주장하며 새롭고 기발한 詩想을 표현해낼 것을 제시하였으니, 같은 시 제6연에서 “길고 짧거나 풍만하고 야윈 것은 각기 고유의 자태가 있는 법, 양귀비와 조비연을 누가 감히 미워하랴?”(短長肥瘦各有態, 玉環飛燕誰敢憎.)라고 하여, 풍만한 미인을 대표하는 楊貴妃와 야윈 몸매의 대표적 미인 趙飛燕이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詩作에 있어서도 맹목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휩쓸릴 것이 아니라 新意의 추구를 목적으로 개별 시인의 개성미를 존중하여 그 장점을 두루 흡수해야 한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식이 作詩 과정에서 어떻게 新意를 추구하였는가? 이점에 대해 조익은 《甌北詩話》 권11(8장-黃山谷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한 양명숙에게 말하기를 “시는 모름지기 세속의 말을 전아하게 만들어야 하고, 옛 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손자와 오자의 병법처럼 백전백승할 것이고, 감승과 비위의 활쏘기처럼 가시나무 끝으로 화살촉을 쪼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기이함이니, 지난날 동파 선생에게서 이 비결을 얻어서 지금 들어내어 그대에게 건네주겠네.”라고 하였다.

又語楊明叔云：“詩須以俗爲雅，以故爲新，百戰百勝，孫·吳之用兵；棘端可以

破鐵，如甘蠅·飛衛之射。此詩人之奇，昔得此秘於東坡，今舉以相付”云。

위 조목에 인용된 글은 본래 黃庭堅의 〈再次韻楊明叔小序〉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 글이 비록 양명숙 시에 차운한 황정건 시의 序文이지만, 말미에 이러한 作詩上의 비결은 바로 스승인 소식에게서 체득한 것이라고 밝혔기에, 소식의 견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新意 추구의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세속의 말을 전아하게 만들고’(以俗爲雅) ‘옛 말을 새롭게 만듦’(以故爲新)으로 귀결되니, 전자는 세상에 흔히 떠도는 말 가운데서 필요한 어휘를 따다가 자신의 작품 속에 되살려서 품격 있고 정채롭게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옛날에 이미 前人들이 사용했던 어휘를 지금의 현실에 맞게 되살려 새로운 느낌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한다.<sup>14)</sup>

여기에서 소식이 추구한 ‘전아함’(雅)과 ‘새로움’(新)으로 변화된 作詩上 비결은 바로 ‘세상에 떠도는 일상의 말’(常言)을 사용하여 깊은 寓意가 담긴 시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런 까닭에 “법도 가운데서 새로운 뜻을 드러내고, 호방한 풍격의 밖에다 오묘한 이치를 부친다.”(出新意於法度之中，寄妙理於豪放之外.)<sup>16)</sup>라고 하여, 시인은 모름지기 내용적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뜻을 드러내야지 형식적 법도에 얽매어서는 안 됨을 거듭 강조하였다.

14) 吳台錫, 《黃庭堅詩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195-196쪽.

15) 소식은 〈詩頌〉에서 ‘常言’의 사용을 통하여 오묘한 경지에 이르게 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상의 말을 내뱉으니, 법도는 前人들이 세운 본보기를 뛰어넘네. 사람의 말이 묘처가 아니라, 묘처가 여기에 있다네.”(“沖口出常言，法度越前軌。人言非妙處，妙處在於是.”，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 第2冊 343쪽에 인용된 通行本 《蘇東坡集·詩頌》에서 인용.)

16) 〈書吳道子畫後〉, 《蘇軾文集》 권5, 2210쪽.

#### IV. 詩句의 鍛鍊에 대한 證立

일반적으로 ‘詩句를 鍛鍊한다’ 함은 시구에 쓰이는 글자를 단련하는 것, 시구에 나타나는 뜻을 단련하는 것, 그리고 시구 전체의 품격을 단련하는 것 등의 의미를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宋代 魏慶之는 《詩人玉屑》권6에서 “구를 단련하는 것은 글자를 단련하는 것만 못하고, 글자를 단련하는 것은 뜻을 단련하는 것만 못하며, 뜻을 단련하는 것은 격조를 단련하는 것만 못하다.”(鍊句不如鍊字, 鍊字不如鍊意, 鍊意不如鍊格.)라고 하여, 作詩 과정에서 시구 전체에 풍기는 품격을 단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조익은 《甌北詩話》 권6〔陸游詩〕(3장)에서 시구의 鍛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른바 단련이라는 것은 기험하고 굴곡진 것과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말은 간결하되 뜻은 깊은 데에 있어서 한마디 말을 남보다 백배 천배 낮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참된 단련임을 알겠다.

抑知所謂鍊者, 不在於奇險詰曲·驚人耳目, 而在乎言簡意深, 一語勝人千百. 此眞鍊也.

조익은 시구를 단련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조탁하는 것이 아니라 ‘詩語는 간결하게 하되 詩意는 깊은 맛이 나도록 만드는 일’(言簡意深)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魏慶之가 《詩人玉屑》에서 말한 ‘시의 격조를 단련함’(鍊格)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甌北詩話》 권5(3장)에서 소식의 시는 시구의 단련으로는 크게 장점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식의 시에 “맑고 참신한 시는 단련을 해야만, 비로소 납속의 은을 얻을 수 있다네.”<sup>17)</sup>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러나 소식의 시는 실제로 시구의 단련을 공교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점은 마음이 투명하고 신령스러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전혀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자연히 가슴에 스며드는 데 있다. 이것이 그가 홀로 뛰어난 점이다.

坡詩有云：“清詩要鍛鍊，方得鉛中銀。”然坡詩實不以鍛鍊爲工；其妙處在乎心地空明，自然流出，一似全不著力，而自然沁入心脾。此其獨絕也。

조익은 소식의 시가 맑고 참신한 意境을 보이는 것은 그가 온 힘을 다하여 시구를 단련한 때문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령스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清新하고 爽快한 느낌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甌北詩話》 권5(21장)에서 소식 시의 시구 단련의 핵심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음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식의 시는 시구의 단련을 공교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극히 잘 단련한 곳도 있으니 사람들은 그가 단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근년에 모든 일이 만족스러웠는데, 빠진 것은 오직 한 번 죽는 것이라네.”…… 이러한 구절은 다른 사람이 천만 번 다듬는다 해도 그렇게 시원스럽고 굳세지는 못할 것이다. 소식이 붓을 휘둘러 써내면 힘을 들인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이른바 타고난 재주 때문이다.

坡詩不以鍊句爲工，然亦有研鍊之極，而人不覺其鍊者。如：“年來萬事足，小欠惟一死。”……此等句在他人雖千鎚萬杵，尙不能如此爽勁；而坡以揮灑出之，全不見用力之迹，所謂天才也。

소식의 시가 비록 시구의 단련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간간히 보이는 그의 단련에 대한 성취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시구를 다듬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련된 시구의 형태로

17) 인용된 소식 시의 제목은 〈崔文學早攜文見過，蕭針有出塵之姿，問之，則孫介夫之甥也。故復用前韻，賦一篇，示志舉〉이다. (《蘇軾詩集》 권45, 2441쪽.)

표출되니, 그의 잘 다듬은 시구 중 〈贈鄭淸叟秀才〉를 포함한 여덟 수의 오언 고시 對偶句를 예시하였다. 이런 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공을 들여 단련한다 하더라도 소식이 단련한 것처럼 ‘시원스럽고 굳세지’(爽勁) 못하니, 이는 모두 그의 천재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조익은 《甌北詩話》 권5(8장)에서 비슷한 意境의 소식 시와 두보 시를 비교하고, 그 우열을 시구의 단련 여부에 두었다.

소식의 시는 붓놀림이 시원하여 일사천리이며 그다지 단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두보의 〈同諸公登慈銀寺塔〉에서 “굽어보니 단지 한 줄기 기운뿐, 어찌 황주를 가려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열 글자로 탑의 높이를 묘사했으며 기상이 대단하다. 소식의 〈鳳翔八觀〉(眞興寺閣)에서는 “산천과 성곽은, 아득히 똑같은 모습이라네. 시장 사람들과 까마귀 까치는, 아득히 한 소리라네.”라고 하였는데, 스무 글자로 누각의 높이를 묘사하였지만 오히려 두보가 남김없이 두루 포괄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단련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이다.

坡詩放筆快意，一瀉千里，不甚鍛鍊。如少陵〈同諸公登慈銀寺塔〉云：“俯視同一氣，焉能辨皇州？”以十字寫塔之高，而氣象萬千。東坡〈鳳翔八觀〉(眞興寺閣)云：“山川與城郭，漠漠同一形；市人與鴉鵲，浩浩同一聲。”以二十字寫閣之高，尙不如少陵之包舉。此鍊不鍊之異也。

위 조목에 예시한 시구가 실린 두보의 〈同諸公登慈恩寺塔〉은 총 24구로 이루어진 오언 고시로서, 두보가 天寶 11년(752) 가을 高適·岑參·儲光羲 등과 長安 남동쪽에 있는 慈恩寺塔에 올라 지은 작품이다. 慈恩寺는 唐 高宗이 태자 시절 자신의 모친 文德皇后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慈恩’이라 불렀다. 貞觀 21년(647)에 세워졌고, 탑은 玄奘이 永徽 3년(652)에 세웠으며 일명 大雁塔이라고도 하는데, 6층이고 높이는 3백 척이다.<sup>18)</sup> 예시된 시구에 앞 2구를 더하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8) 〈同諸公登慈恩寺塔〉의 제목 바로 뒤에 인용된 鶴注 부분 참고. (《杜詩詳註》 권2,



秦山忽破碎,    중남산과 진령은 순식간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涇渭不可求.    경수와 위수는 찾을 길 없다네.  
 俯視同一氣,    굽어보니 단지 한 줄기 기운뿐,  
 焉能辨皇州.    어찌 황주를 가려낼 수 있겠는가?

위 네 구는 시인이 慈恩寺塔 꼭대기에서 굽어본 경물에 느낀 감회를 기탁하여 묘사한 것으로, 전편에서 가장 중심 부분이다.

전반부 두 구에서, 秦山은 終南山과 秦嶺을 가리키니, 평지 위에서 이 산들을 바라보면 한 줄기 푸른 기운만 보일 뿐이나 탑 위에서 아득히 굽어보면 크고 작은 산들이 어지러이 뒤섞인 채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니 마치 대지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다. 원래 涇水는 탁하고 渭水는 맑으나 탑 위에서 굽어보면 어느 것이 경수이고 어느 것이 위수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부 두 구는 산과 강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탑이 매우 높음을 말하고 있다. 후반부 두 구에서, 도읍인 長安을 보노라니 단지 한 줄기 혼연한 기운만 보일 뿐이라고 하여, 아련히 보이는 도읍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탑이 높은 것을 형용하고 있다.

이 네 구는 표면적으로 탑 위에서 굽어본 황혼의 경물을 묘사한 듯하나 많은 含意를 지니고 있으니, 안녹산의 난으로 분열된 山河·맑고 흐림이 불분명한 세상·암울한 도읍·혼란스런 정치 상황 등의 분위기를 두루 나타내고 있다. 이에 조약은 두보가 단지 열 글자로 慈恩寺塔의 높음을 묘사하였으니, 그 기상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긴 것이다.

뒤이어 예시한 소식의 〈鳳翔八觀〉은 8수의 오언 고시로서, 宋 仁宗 嘉祐 6년(1061) 아우 蘇轍과 함께 進士試에 동시 급제한 4년 뒤, 簽書鳳翔

節度判官廳公事를 제수받아 鳳翔府로 나가 있을 때, 그 곳의 명승지 여덟 곳을 둘러보고 지은 것이다. 위 조목에 예시된 시구는 그 중 제6수(眞興寺閣)의 첫 네 구이다. 眞興寺閣은 宋 鳳翔節度使 王彥超가 지었는데, 높이가 十數丈으로 유적은 지금의 鳳翔縣 城 가운데 있다고 한다. 예시된 시구에 뒤 4구를 더하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山川與城郭,	산천과 성곽은,
漠漠同一形.	아득히 똑같은 모습이라네.
市人與鴉鵲,	시장 사람들과 까마귀 까치는,
浩浩同一聲.	아득히 한 소리라네.
此閣幾何高,	이 누각은 얼마나 높은가?
何人之所營?	누가 지었는가?
側身透落日,	몸 기울여 떨어지는 해를 전송하고,
引手攀飛星.	손을 뻗쳐 떨어지는 별을 부여잡네.

시의 첫 네 구는 모두 眞興寺閣의 높음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이 누각에 오르니 바라보이는 산천과 성곽은 아득하여 마치 하나의 물체인 듯한 착각에 빠진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와 까마귀와 까치의 울음소리조차 아득하여 함께 뒤섞여 들리는 듯하다.

다음 네 구는 眞興寺閣이 높음으로 인하여 끝없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전반부에서 고의로 질문을 던지고 후반부에서 形象化된 언어를 통해 앞서 ‘얼마나 높은가?’(幾何高)라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즉, 시인은 누각에 올라 굽어보며 몸을 기울이면 눈으로 해가 떨어지는 것을 전송할 수 있고, 우러러보며 손을 뻗치면 流星도 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다.

조익은 두보의 시구는 단지 열 글자만으로 慈恩寺의 높이를 거시적 안목으로 묘사하여 ‘대단한 기상’(氣象萬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소

식의 시구는 眞興寺閣의 높이를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붓놀림이 시원하여 일사천리(放筆快意, 一瀉千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두 시구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하였다.<sup>19)</sup> 그러나 소식의 시구는 두보의 시구에 비해 시구를 다듬은 노력이 부족하여 ‘두루 포괄하는’(包舉)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하면서 두 시구 사이의 우열을 매겼다. 소식 시에서는 ‘山川’과 ‘城郭’ 그리고 ‘市人’과 ‘鴉鷲’의 네 가지 형상을 통하여 누각의 높이를 묘사한 데 반해, 두보 시에서는 ‘皇州’ 하나로 통합한 고도의 함축미를 살려 탑의 높이를 묘사하였기에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詩作 과정에서 소식처럼 자신의 천재성에 의지한 나머지 시구를 다듬는 일을 소홀히 한 채 마음[뜻] 가는 대로 붓을 마음껏 휘두르다 보면 자연히 시구의 함축미가 떨어지고, 그 결과 똑같은 意境을 그려낸다 하더라도 결국 字數와 詩語가 繁多하게 되는 단점을 드러낼 수 있다.

소식이 비록 시구의 단련에 큰 공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보여주는 그의 성취는 시구에 나타나는 뜻을 다듬는 측면으로 나타나니, 형식적인 성조와 격률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甌北詩話》 권5(3장)에서 소식의 총 18수의 칠언 율시 對偶句(1聯)를 예시하고 그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수십 연은 마음이 가는 데로 표현되어 나온 것으로 조탁이 필요치 않아 자연스러운 맛이 오래 남는다. 가령 전고를 사용한 곳도 그 뜻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에 억지로 구성한 듯한 흔적이 없다. 이것은 성조와 격률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此數十聯，乃是稱心而出，不假雕飾，自然意味悠長；即使事處，亦隨其意之所欲

19) 陳衍의 《宋詩精華錄》에서 이 시를 평하여 “이 시는 소식의 오언 고시 중 健壯함으로는 빼어난 작품이다.”(“此坡公五古之以健勝者.”)라고 評語를 달며 높이 평가하였다. (陳衍 評點·曹中孚 校注, 《宋詩精華錄》, 成都: 巴蜀書社, 1992, 165쪽.)

出, 而無牽合之迹. 此不可以聲調格律求之也.

위 조목에서 예시한 소식의 시는 〈有美堂暴雨〉를 포함한 18수의 칠언 율시이다. 이 시구들은 형식적 조탁을 거치지 않은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되어 나온’(稱心而出)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설령 시구의 단련을 통한 전고의 사용이 있다하더라도 ‘의도한 바를 따랐기’(隨其意)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춘 흔적을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단련의 과정은 성조와 격률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위 조목에서 조익이 성조와 격률이라는 용어를 제기한 것은 아마도 당시 沈德潛(1673-1769)이 주장한 格調詩說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소식의 시는 기본적으로 시구의 단련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작품에 대해 시구를 다듬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형식적인 시구의 조탁이 아닌,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稱心而出)함으로써 그 흔적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으니, 이른바 “눈앞의 참된 경물을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빼어난 시구인 것이다.”(能道得眼前眞景, 便是佳句.)<sup>20</sup>라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익은 《甌北詩話》에서 소식의 시구 단련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입장으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清 錢泳(1759-1844)의 《履園譚詩》에 실린 蘇軾의 말을 인용.

## V. 禪語의 사용에 대한 비판

불교의 禪宗에서 문답 형식을 통해 禪理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예측하는 말을 禪語라고 한다. 이런 禪語가 詩語로 채택된 것은 지식인들 사이에 禪家에 대한 상식적 이해가 보편화되어가던 北宋代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南宋에 이르면 嚴羽(1180-1264)가 ‘선으로 시를 비유하고’(以禪喻詩), ‘詩를 논하는 것은 禪을 논하는 것과 같다.’<sup>21)</sup>라고 하는 시학관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식은 ‘烏臺詩案’으로 인해 투옥된 후 黃州로 謫居하여 〈黃州安國寺記〉를 지을 무렵인 45세 전후로 불교 사상에 몰입하였다. 특히 그가 수용한 불교는 중국화된 불교로서 ‘본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禪宗과 깊은 관계가 있다.<sup>22)</sup>

清代 詩論家 劉熙載(1813-1881)는 《藝概》에서 禪宗의 禪語가 소식의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지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식의 시는 있는 것[有]을 텅 비게[空] 하는 데 뛰어났고, 또 없는 것[無] 가운데서 있는 것[有]을 생겨나게 하는 데 뛰어났다. 그 心思는 禪語 중에서 얻었다.

東坡詩善空諸所有，又善於無中生有，機括自禪語中得來。

劉熙載는 소식의 시는 ‘有’에서 ‘空’을 만드는 데 뛰어났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한 ‘空’이란 불교에서 이른 바 ‘만물은 因緣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니 고정된 것이 없고 虛幻하여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또한 그의 시는 ‘無’에서 ‘有’를 생기게 하는 데도 장점을 보였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21) 《滄浪詩話·詩辨》：論詩如論禪。

22) 조규백, 《소동파 시 연구》, 역락, 2012, 73쪽, 98쪽.

말한 ‘無中生有’는 본래 道敎의 용어로서, 만물은 ‘無’에서 ‘有’가 생겨난다는 뜻이다.<sup>23)</sup> 소식 시의 이러한 불교적 색채의 발현은 기본적으로 禪語를 수용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여겼다.

清代 격조시설을 제창한 심덕잠은 《說詩碎語》 卷下에서, 소식이 시에 禪語를 사용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유의 시는 禪語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禪理를 얻었다. 소식의 시에 “두 손으로 병 속의 참새 막으려 하니, 네 가닥으로도 우물 속의 뱀을 매우 두려워하네.”라고 하였는데, 말 밖에 여운의 맛이 있는가?

王右丞詩，不用禪語，時得禪理。東坡則云：‘兩手欲遮瓶裏雀，四條深怕井中蛇。’言外有餘味耶？

먼저 王維의 시는 禪語를 사용하지 않아도 禪理가 담겨있다고 하였으니, 실제 그의 시 중 “물이 다하는 데까지 가서는, 앉아서 구름이 일어나는 곳을 바라본다네.”(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sup>24)</sup> · “솔바람 부니 허리띠를 풀고, 산의 달은 거문고 타는 것을 비추네.”(松風吹解帶，山月照彈琴.)<sup>25)</sup> ·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샘물 돌 위로 흐르네.”(明月松間照，清泉石上流.)<sup>26)</sup> 등이 그러하다. 시에 직접적으로 禪語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禪理와 禪趣를 느끼게 하는 것이 곧 왕유 시의 장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인용된 소식의 시구는 칠언 율시인 〈三朵花〉<sup>27)</sup>의 頸聯에 해당한다. 이

23) 《老子》 40장 : 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

24) 〈終南別業〉, 《全唐詩》 권126.

25) 〈酬張少府〉, 《全唐詩》 권126.

26) 〈山居秋冥〉, 《全唐詩》 권126.

27) 〈三朵花〉(並敘) : 房州通判許安世，以書遺餘言：“吾州有異人，常戴三朵花，莫知其姓

시구에 대하여 王文誥(1764-?)는 注에서 “불경에서 사람의 몸은 병이요, 정신은 참새와 같다.”(佛經, 人身如瓶, 神識如雀.)라고 하였다.<sup>28)</sup> 두 손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이 날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니, 사람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다. 뒤이은 注에서 “불경서적에 죽음을 피하려는 사람은 우물로 들어가는데, 네 마리의 뱀이 발을 물어 내려갈 수 없다. 네 마리의 뱀으로 사계절을 비유하였다.”(佛書, 人有逃死者, 入井, 則遇四蛇傷足而不能下. 四蛇以喻四時.)라고 하였으니<sup>29)</sup>, 정신이 육신 속에서 사계절의 방해 없이 잘 깃들기를 원하나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두 시구는 불교의 설법으로 景物을 통하여 마음속의 뜻을 기탁하였으니, 단지 禪語일 뿐 禪理는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30)</sup> 그런 까닭에 ‘말 밖에 여운의 맛’(言外有餘味)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익 또한 《甌北詩話》 권5(11장)에서 禪語를 사용하여 지은 소식의 시구를 열거하고, 이는 소식 자신이 禪家의 어록을 두루 섭렵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비난하였다.

…… 〈慶州景德寺榮師湛然堂〉시에서 “뛰어나게 총명하면 잠념이 일지 않고, 우뚝 감정을 떨쳐 버리면 照가 소멸되지 않는다네. 入定할 때에 慧함이 그 속에 있으니, 定慧와 照寂은 다른 것이 아니라네. 妙湛과 總持 그리고 不動尊은, 묵묵히 참되게 不二의 법문에 드네. 말 마치면 조용하니 語와 默은 상대어가 아니니, 이 말은 《周易》의 이치를 가지고 논해야 하겠네. 여러

---

名, 郡人因以三朵花名之. 能作詩, 皆神仙意. 又能自寫真, 人有得之者.” 許欲以一本見惠, 乃爲作此詩. 學道無成鬢已華, 不勞千劫漫烝砂. 歸來且看一宿覺, 未暇遠尋三朵花. 兩手欲遮瓶裏雀, 四條深怕井中蛇. 畫圖要識先生面, 識問房陵好事家. (《蘇軾詩集》 권12, 576쪽.)

28) 〈三朵花〉에 인용된 王文誥의 注 참고.

29) 〈三朵花〉에 인용된 王文誥의 注 참고.

30) 牛月明, 〈錢鍾書의 理趣論〉, 《靑島海洋大學學報》 社科版, 2000.(제2기)

곳에서 사람마다 번개를 통하여 살펴보지만, 참된 모습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네. 묘담과 총지를 알려고 한다면, 강동의 현명한 부하들에게 물으시게나.”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본래 시체가 아니며 이로써 禪理를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뜯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선가어록의 機鋒을 모방함으로써 그가 두루 섭렵했음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虔州景德寺榮師湛然堂〉詩：“卓然精明念不起，兀然灰槁照不滅。方定之時慧在定，定慧照寂非兩法。妙湛總持不動尊，默然真入不二門。語息則默非對語，此話要將周易論。諸方人人把雷電，不容細看真頭面。欲知妙湛與總持，更問江東三語涓。”此等本非詩體，而之以說禪理，亦如撮空，不過彷彿禪家語錄機鋒，以見其旁涉耳。

조익이 위 조목에서 예시한 시구는 도합 여섯 수인데, 그 중 全詩를 예시한 것은 〈虔州景德寺榮師湛然堂〉뿐이다. 景德寺는 南朝 宋나라 때 세워졌으며, 虔州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지세가 탁 트여 성 남쪽의 산수를 조망할 수 있으며, 佛寺가 壯麗하여 2,600칸이나 되고 그 안에 佛像이 만 개나 모셔져 있을 정도로 큰 사찰로 유명하였다.<sup>31)</sup>

조익은 이러한 시편들은 모두 시의 체재를 갖춘 것이 아니라 禪理를 설명하기 위해 공허하게 禪家語錄의 ‘機鋒’<sup>32)</sup>을 본뜬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였다. 제1-2구에서 사용된 ‘精明’은 《楞嚴經》의 ‘精明精妙’에서 나온 말로서 ‘순결하고 총명하다’는 뜻이며, ‘照’ 또한 ‘寂’과 상대적으로 쓰이는 불교 용어로서 ‘넓고 깊은 지혜’란 뜻이다. 제3-4구에서 사용된 ‘定慧’와 ‘照寂’ 모두 불교 용어로서, ‘定慧’는 ‘禪定과 智慧’라는 뜻이요 ‘寂’은 ‘寂滅常靜의 道’를 말한다. 제5-6구에서 사용된 ‘妙湛’과 ‘總持’ 그리고 ‘不動尊’ 또한 모두 불교 용어로서, ‘妙湛’은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음’을 말하

31) 〈虔州景德寺榮師湛然堂〉의 제목 바로 뒤에 인용된 查慎行的 《蘇軾補註》 참고.(《蘇軾詩集》 권45, 2431쪽.)

32) 機鋒은 禪宗의 용어이다. 그 의미는 신속하고도 예리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함의가 깊은 말을 사용하여 문답하는 것을 말한다.



고, ‘總持’는 梵語로 陀羅尼의 의역이며, ‘善을 가지면 잃지 않고 惡을 가지면 남지 않으며 여러 덕을 두루 갖추’를 말하며, ‘不動尊’은 ‘움직이지 않는 明王’이란 뜻으로 佛菩薩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생사와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세상에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조식이 이러한 시편들은 단지 선가어록의 ‘機鋒’에 불과하며, 소식이 禪宗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박학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한 이유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조식은 禪語를 詩作에 사용한 소식의 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성격의 작품 중에도 간혹 볼 만한 것이 있음을 《甌北詩話》 권5(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식은 불교와 도교에 두루 능통하였다. 시 가운데 《황정경》을 모방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변도가〉와 〈진일주가〉 등의 작품은 스스로 한 방면을 이루었다. 불경을 모방함에 있어서는 禪語를 회롱하여 그것을 시에 넣었으니 특히 매우 밍살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 시구들이 소식에게서 나왔으므로 부득이 변호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 이 두 수는 《법화경》과 《능엄경》의 偈語와 매우 비슷하니, 간결하고 능숙하게 쓰여서 한 방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東坡旁通佛老. 詩中有彷彿《黃庭經》者, 如〈辨道歌〉·〈眞一酒歌〉等作, 自成一則. 至於摹彷彿經, 掉弄禪語, 以之入詩, 殊覺可厭. 不得以出自東坡, 遂曲爲之說也. …… 此二首絕似《法華經》·《楞嚴經》偈語, 簡淨老黃, 可備一則也.

《黃庭經》은 魏晉 시기 成書된 칠언 운문 형식의 초기 道教 경전으로, 養生과 修練의 원리를 담고 있어 仙道 수련의 주요 경전으로 여겨지는 책이다. 〈辨道歌〉와 〈眞一酒歌〉 등의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意境은 대략 《황정경》의 내용을 모방한 듯하나 그래도 ‘한 방면을 이룬’(成一則) 詩篇으로 보았으니, “새벽 해가 얼굴에 달라붙어 붉게 햇무리 지니,

봄바람이 골수에 들어와 소리 없이 흩어지네.”(曉日著顏紅有暈, 春風入髓散無聲.)(<眞一酒歌>[칠언 율시]<sup>33)</sup>의 頸聯)라고 한 분위기는 자못 道家에서 추구하는 養生의 의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法華經》은 초기 大乘佛敎의 대표적 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주요 사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楞嚴經》은 禪宗의 주요 경전으로, 因緣과 萬有에 대한 說을 주요 사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佛經의 偈語와 비슷하다고 예시한 두 수의 시편은 바로 <書焦山綸長老壁>과 <聞辯才法師復上天竺, 以詩戲問>이니, 참고로 <書焦山綸長老壁>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法師住焦山,	법사는 焦山에 살지만,
而實未嘗住.	실은 일찍이 살지 않았다네.
我來輒問法,	내가 와서 문득 법을 물으니,
法師了無語.	법사는 끝내 말씀이 없으시네.
法師非無語,	법사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不知所答故.	대답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라네. <sup>34)</sup>

禪家の 偈語는 불교적 교리를 담은 漢詩의 한 형식으로, 대부분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로 불리었다. 위 시를 보더라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禪家の 偈語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말미에 ‘간결하고 능숙하여’(簡淨老黃) ‘한 방면을 갖추었다’(備一則也)고 하며, 어느 정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익의 관점은, 원매가 《隨園詩話》에서 嚴羽가 추구한 詩에 禪을 직접적

33) 全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撥雪披云得乳泓, 蜜蜂又欲醉先生. 稻垂麥仰陰陽足, 器洁泉新表裏清. 曉日著顏紅有暈, 春風入髓散無聲. 人間眞一東坡老, 與作青州從事名. (《蘇軾詩集》 권43, 552쪽.)

34) 《蘇軾詩集》 권11, 552쪽.

으로 借入하는 이론에 대하여, 그것이 論詩의 핵심으로 활용되는 것은 반대하였지만, ‘시 가운데 하나의 격’(詩中一格)으로서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그러나 조익은 기본적으로 소식이 作詩 과정에서 禪語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시종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 VI. 결 론

지금까지 총 12권으로 구성된 《甌北詩話》 중 蘇軾 卷에 해당하는 제 5권(총 25장)에 대해, 소식의 시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작업은 性靈詩派의 한 사람인 시론가로서의 趙翼의 입장에서 그가 《甌北詩話》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네 가지 항목 즉, ① ‘以文爲詩’의 완성자 ② 新意의 추구에 대한 찬동 ③ 詩句의 鍛鍊에 대한 중립 ④ 禪語의 사용에 대한 비판 등을 설정한 후 전체 25장의 내용을 완전히 해체한 뒤 소식 시론과 관련된 기준에 의거하여 다시 복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첫째, 한유에서 시작된 ‘以文爲詩’의 作詩 경향이 소식에게서 완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은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의 議論化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達隱)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없을’(無難顯之情) 정도로 시인의 흥금에 담고 있는 모든 사상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여겼다. 둘째, 소식이 창작과정에서 끊임없이 新意를 추구하였다는 점에 강한 찬동을 나타내고, 그가 제시한

35) 《隨園詩話》 정편8-71 : 嚴滄浪借禪喻詩, 所謂「羚羊挂角」, 「香象渡河」, 有神韻可味, 「無迹象可尋」, 此說甚是. 然不過詩中一格耳.

新意의 추구는 '뜻은 다른 사람이 말한 적이 없어야 하고'(意未經人說過) '글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書未經人用過)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부각시켰다. 또한 新意의 추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세속의 말을 전아하게 만들고'(以俗爲雅) '옛 말을 새롭게 만듦'(以故爲新)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식의 시가 비록 시구의 鍛鍊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하더라도 간간히 보이는 그의 단련에 대한 성취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시구를 다듬은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련된 시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형식적인 시구의 조탁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稱心而出)함으로써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소식이 시에 禪理나 禪趣를 담으려 하지 않고 그저 편의적으로 禪語를 詩作에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한 作詩 경향을 나타내는 다량의 작품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禪趣를 느낄 수 있는 禪詩 중 그 풍격이 간결하고 능숙하여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룬 작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총 25장 중 제12장 후반부와 제13장·제16장 그리고 제20장에서 적지 않은 편장을 할애하여 소식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른바 烏臺詩案과 관련된 내용의 詩篇들과 이에 대한 조익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조익은 당시 소식이 烏臺詩案에 연루된 빌미를 제공한 詩篇들을 소개하면서 소식과 政爭 관계에 있던 新法派가 아닌 소식 편에 서서 그가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변호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正史를 고증한 《二十二史劄記》(36권)와 언어·사물 등의 기원과 典據를 기록한 《陔餘叢考》 등 清代를 대표하는 고증학 관련 저작을 남긴 조익이 당시의 상황을 남다른 혜안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고증하며 서술한 편장들이기에,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 또한 향후 과제로 남

겨두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趙翼 著, 霍松林·胡主佑 校點, 《甌北詩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 조익 저, 송용준 역해, 《甌北詩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蘇軾 著, 王文誥 輯註, 《蘇軾詩集》(全五冊) 권5, 北京: 中華書局, 1982, 2210쪽,  
권8, 371쪽, 권11, 552쪽, 권12, 576쪽, 권22, 1155쪽, 권43, 552쪽,  
권45, 2431쪽, 2441쪽.
- 袁枚 著, 王英志 主編, 《袁枚全集》(全八卷), 江蘇古籍出版社, 1993.
- 陳衍 評點, 曹中孚 校注, 《宋詩精華錄》, 成都: 巴蜀書社, 1992, 165쪽.
- 杜甫 著, 仇兆鰲 注, 《杜詩詳註》(全五冊) 권2, 北京: 中華書局, 1979, 103-104쪽.
- 郭紹虞 主編, 《中國歷代文論選》(全四冊) 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343쪽.
- 吳台錫, 《黃庭堅詩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195-196쪽.
- 정요일 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148쪽.
- 조규백, 《소동과 시 연구》, 역락, 2012, 73쪽, 98쪽.
- 葛曉音, 〈論蘇軾詩文中的理趣——兼論蘇軾推重陶王韋柳的原因〉, 《學術月刊》, 1995,  
4, 《中國古近》 1995년 08기.
- 吳枝培, 〈蘇軾的文藝創新精神〉, 《南京大學學報》, 1988. 1, 《中國古近》 1988년  
03기.
- 牛月明, 〈錢鍾書的理趣論〉, 《青島海洋大學學報》 社科版, 2000. (제2기)
- 拙稿, 〈隨園詩話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6.

中文摘要

### 探討對《甌北詩話》裏面蘇軾詩的詩學觀點

申 載 煥

由12卷組成的《甌北詩話》中對蘇軾卷第5卷(總25章)蘇軾的詩論進行了分析。而把觀察的重點放在了身為性靈詩派的詩論家趙翼想在《甌北詩話》凸顯的四點上，即①‘以文爲詩’的完成者，②贊同新意的追求，③對詩句的鍛鍊保持中立的立場 ④指責禪語的使用，然後採取了將25章的內容完全拆開后再按有關蘇軾詩論的標準重新還原的方式。

首先，闡明了由韓愈開始的‘以文爲詩’的作詩傾向到蘇軾手里告完成，並指出他主要在內容層面偏于議論化了。結果他通過‘達隱’表達出了‘無難顯之情’。第二，他對蘇軾在創作過程中不斷追求‘新意’表示了贊同之意，並強調他所追求的新意要符合‘意未曾經人說過’·‘書未曾經人用過’的前提條件。並在追求詩意的方法方面提出了‘以俗爲雅和’以故爲新’。第三，認爲蘇軾的詩歌雖不能以詩句的鍛鍊爲其長處，不過他在詩句的鍛鍊方面的造詣已達到了登峰造極的地步。也說蘇軾所以能如此是因爲他無意追求詩句的雕琢，而‘稱心而出’的結果，即表示了中立的態度。

第四，他對蘇軾的詩不入禪理或禪趣而有意模仿禪語的傾向表示了強烈的不滿，並舉出了大量的例子。不過對有禪趣的禪詩中其風格‘簡淨老黃’的成就，就表示了一定的肯定。

#### 關鍵詞

趙翼，甌北詩話，蘇軾，以文爲詩，議論化，新意的追求，詩句的鍛鍊，禪語，以禪喻詩，性靈詩說

▪ 논문투고일 : 2012.6.22 심사완료일 : 2012.7.24 게재결정일 : 2012.8.6